

# 생태계 기능 회복 효과 특출

### 익산시, 수질정화 작업·환경정비 활동 지속 추진 천연기념물 수달·저어새 출현 등 복원 효과 방출

익산시가 점차 다양한 동·식물들의 안정적 서식지로 자리 잡게 되면서 지역 내 생태 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환경친화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금강동 유천생태공원에 있던 한 시민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시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시하며 소식을 알렸다.

수달이 발견된 금강동 지역 유천생태공원은 지난 2009년부터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이 금강동 하수처리장에서 여러 단계의 고도 처리를 통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방류수 재이용으로 수질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공원 내 생태습지·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생태습지에는 약 1.1km의 생태수로를 설치해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습지

상부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로수길과 전통정원, 미로공원, 하늘언덕 등을 조성한 결과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이면서 생태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돼 꾸준히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어 시에서 동·식물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주기적인 환경정화와 시설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달 초부터 오는 2022년 3월까지 2개 팀을 구성해 분기별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에는 영등동 지역의 도심 힐링공간인 소라산 자연마당에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출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희귀종의 동물들이 연달아 발견되는 일은 드문 경우이며 이는 지역의 생태복원에 대한 효과가 특출히 나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일례로 볼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의 자생기능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습지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각종 수생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시의 생태자원 복원기술은 이미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타 지자체에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시는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도와 협력해 현업측사 매입으로 가축분뇨 오염원을 줄이고 휴·폐업측사 매입 등 상류지역 오염원 제거사업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익산천 수질의 경우 사업 시행 전보다 98%가 개선되고 복합악취는 지난 2012년 대비 87%가 저감되는 효과를 얻었다. 주요제의 경우에는 봉어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한 습지로 거듭났다.

익산=장양원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코로나19 경각심 늦추면 안돼”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확진자 발생 재난문자 송출 금지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장과 일상생활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적극 대처해 n차 감염 확산으로 번지

지 않도록 방역 활동과 확진자 가족과 접촉자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기준 강화로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등을 재난문자로 송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가 송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시민들이 확진자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주변 시군에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익산시도 안전한 상태로 볼 수 없다”며 “개학과 따뜻한 날씨로 활동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시민들의 경각심마저 느슨해진다면 또다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방역수칙 준수에 힘쓰고, 재난문자 대신 직접 정보 검색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익산시가 농정수도를 목표로 추진해 온 각종 농업정책이 정부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10개 지자체와 9개 품목광역조직을 대상으로 원예산업 종합계획의 이행노력, 생산분야, 유

동분야 3개 항목 6개 지표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탐마루 딸기 공동출하회 출범 등 생산자조직 육성, 공동출하·선별확대를 통한 조직화 출하, 원예농산물 취급대비 통합마케팅 출하액 63%의 참여조직 참여도 등 3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원예농산물 판매실적 2019년 350억 대비 2020년 380억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또한 올해 산지유통종합평가(익산탐마루조공법)에서도 총 취급액 대비 공영도매시장 정가 수익매매 취급비율 12%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산지유통활성화 자금(무이자 인센티브) 총 69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참여 조직 원물 확보 자금 지원과 농자재 공급자금 등에 활용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5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종교, 유흥, 위생시설 등 위험 집합장소 등 2,843개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취약시설 합동점검

### 군산시, 11일까지 2843개소 대상 현장점검·행정조치 등 시행

군산시가 종교시설, 체육·관광시설,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위생시설 등에 강력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5일 강임준 군산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종교, 유흥, 위생시설 등 위험 집합장소 등 2,843개소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달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타지역 종교교회 참석과 관련해 12명, 주점 지인모임과 관련해 9명, 자가격리해제 전 확진자 2명이다.

이에 타지역 방문 및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사회적모임 자제 등의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를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인 피로도 누적과 예방접종에 따

른 긴장감 완화로 불철 이동이 많은 시점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1주일간 경찰서,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종교시설, 체육·관광시설,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위생시설 등 관내 2,843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해 추진되며 방역수칙 미이행 시 강력한 시정조치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출입자에 대한 명부작성 등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단체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조치 계획이다.

강 시장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경제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의회, 코로나19 백신접종 관계자 격려 방문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 의장단이 5일 월명체육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을 살피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방접종 절차와 실시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백신접종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대기 중인 어르신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

다”며 “백신접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화이자백신이 사용되며, 노인시설 및 75세 이상 어르신 등 1만7,506명 대상으로 1차 접종기간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3주 뒤에 진행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문서24 활용 민원 업무 추가 확대

군산시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종이 문서 감축과 사무비용 감소를 위해 문서24를 활용한 민원 업무 수행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문서24’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다.

시는 보조금, 물품 납품 등의 업무를 문서24를 통해 수행, 종이 문서 감축, 문서 누락 가능성의 최소화 및 문서 유통 이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 기관 서식 수요조사 및 등록을 통해 문서24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을 추가 확대하고 작년 하반기 개통한 ‘모바일 문서24’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기관에 제출한 공문서의 처리결과 및 기관의 회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모바일 문서24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별도 앱 설치없이 모바일URL(m.open.gdc.go.kr)을 통해 접속, 이용할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 시민 현수 장미 식수행사 가자

군산시는 5일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장미 현수 의향을 밝힌 12개 업체와 함께 장미 식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산림조합 등 12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롯데마트에서 남북로사거리까지 양방향 화단 26개소에 장미 3,040본을 식재했으며, 설계가로 4,500만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수송사거리 일원에 20개 기업체가 참여해 시민현수 장미특화거리를 1차적으로 조성했으며, 올해는 남북로사거리까지 현수운동을 이어나가 수송동 중심지에 총 9,040본의 장미로 구성된 특화거리 조성을 마무리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 참여해주신 현수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